

# 분쟁대비 특허분석 보고서

## U뱅킹기술(2)

### 특허동향

#### 1. 전체특허동향

연도별 U-뱅킹 관련기술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관련기술의 출원이 미비하다가 최초의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6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또한, 2000년부터의 급속적인 증가세는 영업방법(BM)발명의 인정으로 인한 증가세로 파악된다.

#### 2. 기술별 특허동향

초기에는 기기 관련기술의 출원비중이 높으나 점차 서버/시스템 관련기술의 비중이 높아져 2004년까지의 전체 비중은 시스템/서버 관련 기술의 비중이 64.0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기기 관련기술의 비중의 증가세를 나

### [연재 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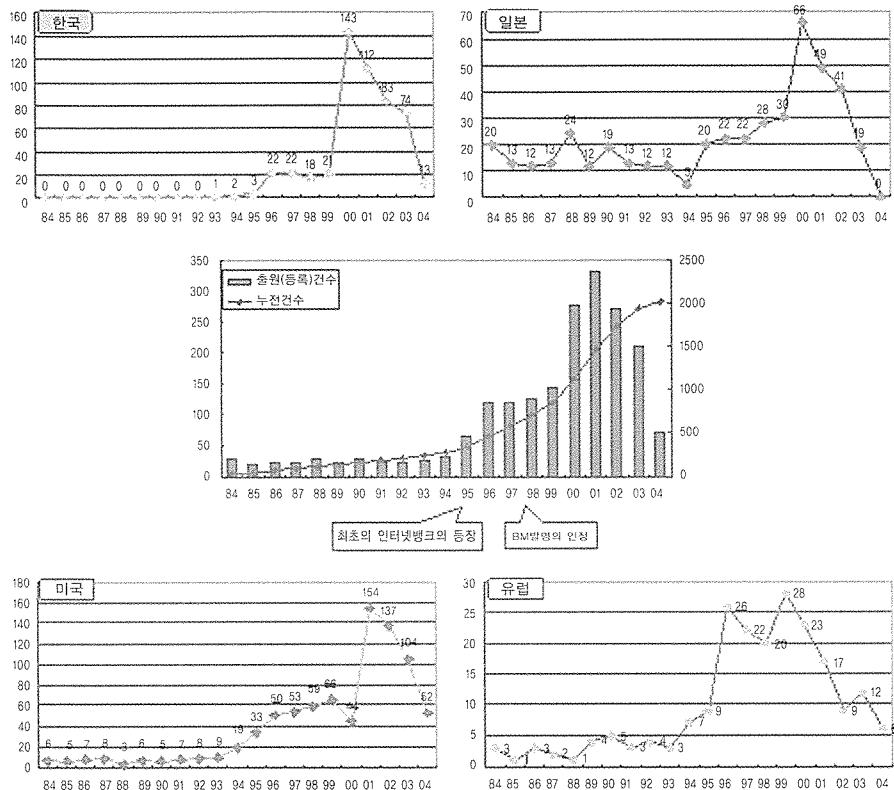
연재	신엽분야	세부분야	과제명
2006. 1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1)	제1장 기술의 개요
	전기전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1)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응용기술(1)	
2006. 2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2)	제2장 특허동향
	전기전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2)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응용기술(2)	
2006. 3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3)	제3장 심층특허분석
	전기전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3)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응용기술(3)	
2006. 4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4)	제4장 결론
	전기전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4)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응용기술(4)	
2006. 5월호	전기전자	홈서버 및 홈케이트웨이 기술(1)	제1장 기술의 개요
	전기전자	휴대이동 방송기술(1)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전단 및 치료기술(1)	
2006. 6월호	전기전자	홈서버 및 홈케이트웨이 기술(2)	제2장 특허동향
	전기전자	휴대이동 방송기술(2)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전단 및 치료기술(2)	
2006. 7월호	전기전자	홈서버 및 홈케이트웨이 기술(3)	제3장 심층특허분석
	전기전자	휴대이동 방송기술(3)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전단 및 치료기술(3)	
2006. 8월호	전기전자	홈서버 및 홈케이트웨이 기술(4)	제4장 결론
	전기전자	휴대이동 방송기술(4)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전단 및 치료기술(4)	
2006. 9월호	전기전자	U-뱅킹기술(1)	제1장 기술의 개요
	전기전자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1)	
	화학약품	개량산악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1)	
2006. 10월호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 무기화학소재(1)	제2장 특허동향
	전기전자	U-뱅킹기술(2)	
	전기전자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2)	
2006. 11월호	화학약품	개량산악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2)	제3장 심층특허분석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 무기화학소재(2)	
	전기전자	U-뱅킹기술(3)	
2006. 12월호	전기전자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3)	제4장 결론
	화학약품	개량산악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3)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 무기화학소재(3)	
	전기전자	U-뱅킹기술(4)	
	전기전자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4)	
	화학약품	개량산악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4)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 무기화학소재(4)	

\* 상기 연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쟁대비 특허정보넷 (<http://www.patentmap.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RFID/태그, 스마트카드 관련 발명과 통합 단말기 등의 출원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스템/서버 관련기술의 경우 미국의 출원비중이 4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출원비중은 24.48%로 일본의 19.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의 IT 산업의 발달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기 관련기술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출원비중이 31.42%와 30.36%로 비슷하여 기기 관련기술



[그림 1]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

에서의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뱅크가 최초로 등장하는 1995년 이후를 기준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도별 주요 출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시스템/서버 관련기술에서는 CITIBANK, IBM, HITACHI, NEC, LG 등의 기업이 주요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서버 관련기술의 주요 출원인이 대부분 미국과 일본 기업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LG와 KT만이 포함되고, 연도별로는 1999년까지는 한국 기업이 주요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 해마다 한국 기업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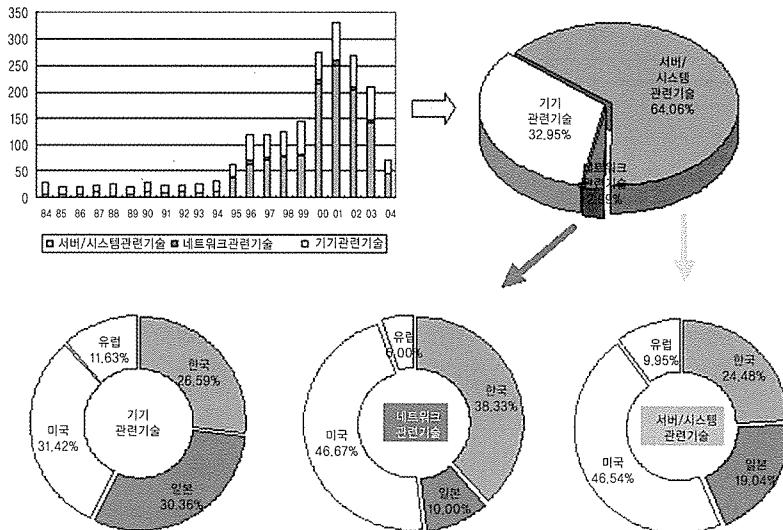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HITACHI와 미국의 NCR이 기기 관련기술분야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LG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TOSHIBA, OMRON, NEC, FUJITSU, OKI 등과 미국의 DIEBOLD, CITIBANK 등 일본과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더 많다.

연도별로 주요 출원인에서는 한국의 국민은행과 SAMSUNG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3년에는 개인들이 출원한 특허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주요기업 특허동향

4개 주요기업의 전체 출원동향을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HITACHI의 경우 연도별로 꾸준한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CITIBNAK,



[그림 2] 기술 분류별 출원동향 및 국가별 동향

NCR, IBM의 경우 1995년을 기점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했다.

연도별로 4개 주요기업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으나 94년을 제외하고 4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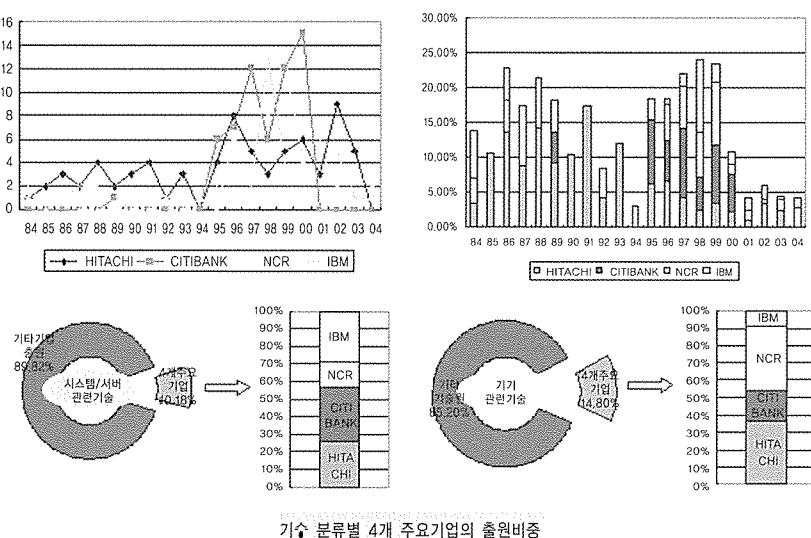
업의 출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10-20%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인터넷뱅크가 최초로 등장하는 1995년부터 BM 발명의 출원이 가장 많았던 2000년 이전까지 꾸준히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했다.

회사별로 처음에는 HITACHI와 IBM의 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 인터넷뱅크의 등장과 1998년 BM

발명의 인정 후에는 CITIBANK와 NCR의 출원 비중이 높아졌다.

HITACHI의 경우 전기전자 회사로 주로 기기 관련기술의 비중이 높은 반면, CITIBANK는 금융 회사로서 상대적으로 시스템/서버 관련기술 중 특히 BM 발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NCR의 경우 1996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거의 출원이 없다가 1996년부터 그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 이는 NCR이 AT&T에 합병되었다가 다시 분사한 1996년부터 다시 NCR의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출원건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주요 4개 기업의 전체 출원동향